

도쿄LNG, 제3자전용 LNG선 사업 개시

일본내 가스 2개사와 20년간 운송계약

도쿄가스(Tokyo Gas)가 100% 출자한 도쿄 LNG Tanker(주)가 LNG 제3자전용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도쿄LNG Tanker는 3월말 자사 소유로는 2번째로 대형 LNG선 'Energy Advance'(145,000 G/T)호를 카와사키 조선소에서 준공하는데 맞추어 시즈오카 가스(Shizuoka Gas)와 20년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동사의 방침은 '최종적으로 LNG선 5척의 풀(pool) 운항방식으로 타사전용 화물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는 것이다.

도쿄LNG Tanker는 모회사인 도쿄가스 LNG 운송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2000년에는 자사소유로 2척의 신조선 발주를 결정했고, 기타 가스 회사의 LNG 해상운송서비스 진출을 시도하는 등 도시가스회사의 해운자회사라는 장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해상운송사업을 개척하고 있다.

동사는 2004년 초, 토호가스와 20년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운송량은 20만~40만톤(3~6 항차)으로 토호가스가 서호주 확장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LNG 티가(Malaysian LNG Tiga)사로부터 구입하는 LNG를 운송한다.

또한, 2005년 초, 시즈오카 가스와는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7만~13만톤(1~2 항차)으로 LNG선은 서호주 확장프로젝트에 투입된다.

도쿄LNG는 현재, 자사소유의 첫 번째 선박, 'Energy Frontier' (카와사키 조선에서 2003년 9

월 준공)호를 운항하고 있다. 3월말 준공 예정인 2번째 선박에 이어, 내년 12월말, 준공 예정인 MOL 소유의 신조 LNG선 1척과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자사 소유선박 이외로는, 작년 12월 노르웨이 선사인 골라(Golar LNG)사의 Tanker, '골라 윈터(Golar Winter)'를 도쿄가스 전용으로 spot 배선한 것 이외에, 2003년 11월 한국가스공사 전용 LNG 운송에 'Energy Frontier'를 배선하는 등 제3자전용 운송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도쿄가스는 도시가스 원료용으로 연간 850만톤의 LNG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최근에는 천연 가스 공급지까지 자사에서 Tanker를 배선해 화물을 운송하는 FOB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서호주 확장, 말레이시아 LNG, 다윈 LNG(호주), 사할린 II(러시아)의 각 프로젝트로부터 FOB 계약으로 총 350만톤 가량의 LNG 구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도쿄LNG는 도쿄가스전용 운송을 포함해 사할린 II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2007년 2월 이후를 목표로, 자사 소유 혹은 정기용선으로 2척의 신조 LNG선을 추가 조달해 5척 체제로 제3자 전용 LNG운송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쿄가스 전용과 장기운송계약 분에 운송 능력의 70~80%를 소화하고 남은 20%를 5척의 풀 운항으로 타사전용 spot 배선으로 돌릴 계획이다.